

#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어디까지 왔나

## 최근 10여년간 많은 발전... 전문연구화 추세

“현재 조선내는 대체로 조용하여 특별히 우려해야 할 일은 없고 민심은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 일반의 가슴 속에 흐르는 민족적 차각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1934, 조선총독부 경무국)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로 조용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특별히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낙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 중 전례없이 길고 모진 식민지하에서도 그토록 ‘심각했던’ 일반 민중의 ‘민족적 자각’은 오늘도 여전한가.

우리의 독립이 외부의 힘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왜곡된 역사관,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식민지의 잔재들, 그리고 무엇보다 식민의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을 갈라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은 오늘 우리의 민족적 자각이 “특별히 우려할 만한” 것임을 웅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아직 미완의 독립이라고 이야기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의의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 뒤늦은 독립운동사연구의 출발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작업이 시작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우월한 역사를 지닌 이 시기의 연구는 주로 보훈처(당시 원호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 기금운용위원회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독립운동사」가 1965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역시 국편의 「한국독립운동사자료(1~23)」(1970), 보훈처의 「독립운동사(1-7)」와 자료집(1-17),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운동사」와 자료집이 모두 같은 해인 1970년 첫 권을 낸 이후 연차적으로 출간되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심화된 우리 경제의 일본 예측화 현상과 바로 그 시기부터 표면화한 정부측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이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도 한다. 이 시기에 출간된 책들은 대체로 생존체험자의 증언이나 기억에 의존한 것이 많아 요즘에 와서 볼 때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고, 본격적인 연구서라기보다는 자료집의 성격을 띠는 것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개인적인 연구서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 수가 적고, 전공 학자

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변학문 연구자 또는 관심을 가진 일반 저술가의 연구가 주를 이룬 것이 특징.

이렇듯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 일기 시작한 우리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쏠린 학계와 일반의 관심은 한국 근·현대사 이해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한편 1987년 문을 연 독립운동사연구소(독립기념관 부설)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 연구소는 현재 15명의 상임연구원을 두고 독립운동사의 연구성과를 모은 논문집 「한국독립운동사의 연구」(1-8)를 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독립운동사의 제자리 찾기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 질적인 전환을 이룬 시점으로 독립운동사연구소의 개설을 드는 학자도 적지 않다.

### 독립운동의 흐름 정리한 通史

80년대 후반 단행본 형태로 출간되어 일반에 공개된 독립운동사 연구성과 중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통사들이다. 독립운동 통사의 발간은 종래의 근대사 연구에서 개화나 근대화에 대한 관심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근대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던 독립운동을 하나의 독립적인 분류사로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하의 역사를 일제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통치했느냐는 피침(被侵)의 역사가 아니라 독립투쟁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이 시기 독립운동 통사들의 특징.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87년부터 연차적으로 출간한 「한민족 독립운동사」(13권)와 자료집(15권) 및 별집(16권)과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펴낸 「한국독립운동사의 재조명」(1989)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모은 것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조동걸(국민대)교수의 「한국민족주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한국민족주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는 각각 3·1운동을 기점으로 그 전·후의 독립운동을 민족주의 성립과 발전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이러한 통사 외에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사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쏠린 학계의 관심은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이던 독립운동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체계적 통사를 비롯해 나라밖의 투쟁,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까지 부문별 연구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 지나친 개인, 전투사 중심의 연구라는 반성과 함께 사상사적 측면에 대한 조명이 아직 남아있는 학계의 과제로 지적된다.**

연구성과 가운데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각종 독립단체들에 대한 연구. 대한자강회, 근우회, 각종 학생조직 등 사회단체의 저항운동의 실상을 밝혀 놓고 있는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와 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에 관한 연구논문을 모은 신용하(서울대) 교수의 「독립협회연구」 등이 있다. 고려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젊은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에서 펴낸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은 그간 연구가 부진했던 1930년대를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를 통해 당시의 경제구조와 사회의식을 검증하고 개별분야의 시대상을 조명,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 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핀 논문 8편을 모았다.

### 나라밖에서의 독립운동

문민정부 출범 이래 대한민국의 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립되기도 했지만, 나라밖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시정부에 관한 연구이다. 이현희 교수의 「대한민국임시정부」(1991)는 광복정책의 대표성을 띤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추적, 종합고찰한 책. 정용대 교수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외교사」(1992)는 1919년 임시정부의 수립과 아울러 진행되었던 국제적 외교활동에 주목, 그 진행과정과 성과, 문제점과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임시정부의 활동이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밝히고 있다.

「한국광복군연구」는 50여년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을 종결짓는 대표적 존재인 광복군의 활동을 밝힌 것으로, 임시정부와 중국측 사이

에 왕래한 각종 공문서 및 중국측 내부에서 오고간 보고서 등을 비롯, 미국측의 OSS문서도 참고하는 등 실증적 연구에 주력했다.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는 만주와 노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일 독립운동사를,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는 중국군관학교를 매개로 축적된 항일투쟁역량의 생성과정과 그 실체를 중심으로 일제하 중국지역에서 전개된 한인 독립운동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면모를 일그러뜨리거나 훼손함이 없이 드러내는 데 있어 그간 가장 미진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들. 분단이라는 왜곡된 민족사가 가져다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폄하나 무관심, 의도적인 배제, 주관적인 사실해석 등은 남·북한 양측이 함께 범한 오류라는 게 최근 이 분야 연구자들의 공동된 평가이다. 이데올로기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젊은 세대의 학자들이나 해외 한국학자들에 의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근년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항전별곡 조선독립동맹자료」는 이정식(미펜실바니아대)교수와 한홍구(서울대 국사학과 재학중)씨가 함께 펴낸 책으로 남북 모두에서 이념적 규격에 맞지 않아 왜곡되어버린 연안과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성립과 활동을 다룬 연구논문과 함께 항쟁 참가자들의 투쟁담과 수기를 수록, 생동감 있게 조명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한국역사연구회의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는 1929~45년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전개과정, 투쟁 및 조직조선 등을 살피고 있다. 「신간회연구」, 「일제하 농민조합연구」도 그동안은 쉽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분야의 연구서들.

### 독립운동사 연구의 과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고서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이제 본래대로 올랐다”는 평가는 그다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는 분명 많은 발전을 이룬 것만은 틀림없다. 물론 지속적인 자료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면모가 좀더 촘촘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사실 자체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계의 자평이다. 독립운동을 독립적인 분류사로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연구인력도 점차 전문화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신용하 교수(서울대)는 “그간의 독립운동사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한말 의병운동, 한말 애국계몽운동, 3·1운동, 1920년대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했던 데 비해 1910~1918년, 1930~해방직전까지의 연구는 미진하다. 계통상으로는 사회주의계열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미진한데 특히 연안과 조선 독립동맹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한다.

독립운동사 연구의 과제는 이뿐만 아니다. 신주백(성균관대 강사)씨는 “그간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지나치게 단체나 개인, 전투사 중심의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하고 당시의 정치·사회·경제·외교적 측면과 사상사 등을 함께 아우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립운동사 연구의 어려움에 대해, 이젠 정

치권력에 의한 학문적 자유의 구속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 미국, 중국, 소련 등 각지로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과 개인 소장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사장시키고 마는 안타까움 외에 연구자들이 밝히는 어려움은, 독립운동사 연구가 심화되는 것을 꺼리는 세력이 아직까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다.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존재가 암암리에 거론되고, 연구자들의 학문적 평가를 놓고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압력을 가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 현대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된,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잔재에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날날이 드러내어 진정한 민족사관을 확립하고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인통일의 길을 제시하는 일이야말로 독립운동에 뿌려진 무수한 선인들의 피에 값하는 일이고, 이것이 독립운동사 연구가 중국에는 이루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박남정>

한국독립운동사 주요 연구서 목록

국내에서의 운동

- 2·8독립운동/국가보훈처/1991
- 3·1운동시론/이현희/동방도서/1979
- 3·1운동과 민족의 함성/이종률/인문당/1984
-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정세현/일지사/1975
- 판례를 통해서 본 3·1운동사/정광현/법문사/1976
- 3·1민족해방운동연구/역사문제연구소/청년사/1989
- 3·1독립운동/신용하/독립운동사연구소/1989
-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일송정/1991
-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역사학회/일조각/1987
- 한국민족운동사연구(1-6)/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지식산업사/1993
- 한국근대민족운동사/안병직 외/돌베개/1980
- 독립운동사연구/박성수/창작과비평/1980
-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신용하/을유문화사/1985
- 한국민족운동사/조지훈/나남/1993
- 한국독립전쟁사/김창순 외 편/삼광/1989
- 한민족광복투쟁사/이현희/정음문화사/1989
- 한국근대문학과 문인들의 독립운동/김윤식/독립기념관/1989
- 한국여성독립운동/박용옥/독립운동사연구소/1989
- 국외에서의 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이현희/한국민족운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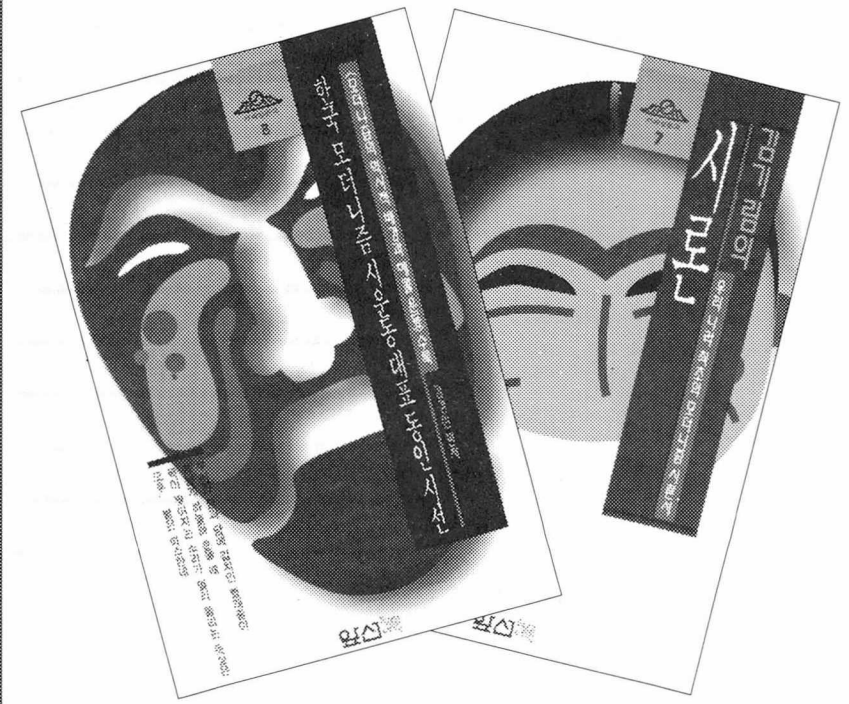
연구회/1991

-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이현희/동방도서/1987
- 대한민국임시정부의교사/정용대/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2
- 대한민국임시정부사/조경환/임시정부기념사업회/1991
- 대한민국임시정부사/추현수/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1989
- 한국광복군연구/한시준/일조각/1993
- 한국독립운동과 열강관계/정치외교사학회 논문총 2/평민사/1985
- 일제하 독립운동사-만주와 노령지역을 중심으로/박영석/일조각/1984
- 만주 한인 민족운동사연구/박영/일조각/1991
-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한상도/문화과학사/1994
- 재미한인의 독립운동/방선주/아세아문화연구소/1989
- 재미 한인 독립운동사연구/박영석/일조각/1988
-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윤병석/일조각/1990
- 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김기주/느티나무/1993
- 사회주의 운동
- 항전별곡 조선독립동맹자료/이정식·한홍구/거름/1986
-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한길사/1991
-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연구/배성찬 편역/돌베개/1987
- 신간회연구/이규영/창작과비평사/1993

# 백·년·독·서

기와집문고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 학제의 신간



### 기와집문고

- 1 “1933년 일본의 이와나미문고로 첫 출간”  
**김소운의 한국 구전 동요**  
김소운 편저/192쪽/3,800원
- 2 “동화문학의 원형, 그 학술적 가치”  
**한상수의 한국 구전 동화**  
한상수 편저/288쪽/3,800원
- 3 “우리나라 최초의 베스트셀러”  
**김성철의 고쳐 쓴 한국 역사**  
김성철 지음/272쪽/3,800원
- 4 “홍종우, 왜 김옥균을 살해하였는가”  
**刺客 홍종우**  
아오야기 미도리 지음/김심은 옮김/358쪽/4,800원
- 5 “판소리의 정본제시”  
**신재효의 판소리 여섯바탕집**  
신재효 편저/강한영 교주/304쪽/4,500원
- 6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 숙명이 되어있는 모든 생활인에게 바치는 글”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  
김진섭 지음/275쪽/3,800원
- 7 “우리나라 최초의 모더니즘 시론서”  
**김기림의 시론**  
김기림 지음/242쪽/3,800원
- 8 “〈모더니즘의 역사적 배경과 예술 운동〉 수록”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 대표 동인 시선**  
김경린 편저/206쪽/3,800원  
(계속 펴냅니다)